

공익 대변인

Letitia James (D, WF)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티샤 제임스입니다 - 하지만 사람들은 저를 그냥 티쉬라고 부르지요. 저는 차기 뉴욕시 공익 대변인이 되기 위해 출마한 민주당원입니다. 공익 변호사로, 부검찰총장으로 또 지금은 시의원으로 일하며 쌓아온 제 공직 경력은 뉴욕시의 중산층과 노동자 가정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데 느끼는 제 열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강력한 이익단체들에 맞서 평범한 뉴욕커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저는 뉴욕시 모든 지역의 임대 아파트에 주요한 수리를 규정한 안전주거법을 통과하는데 앞장섰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강력한 개발자들과 부유한 기업에 맞서 지역사회들이 그들의 몫을 받을 수 있도록 싸웠습니다. 또한 납세자들이 낸 수억 달러를 잃게 한 시티타임 부패 스캔들 관련 남용 및 사기행위를 발각했습니다. 공익 대변인은 시장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행정부와 맞서 노인센터 예산 삭감, 방과후 프로그램, 아이들을 위한 좋은 교육 그리고 지역 소방서 폐지 반대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한 입증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익 대변인으로서 저는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갈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같이 풀어나갈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소박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 부모님은 저임금 노동자였고, 바로 이것이 저를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는 지도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열정과 시의원 임기를 포함해 제가 공직 경력을 싸으며 추진했던 진보적인 제도를 공익 대변인 사무실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차기 뉴욕시 공익 대변인으로서 여러분을 위해 계속 싸울 기회를 꼭 얻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9월 10일 여러분의 지지가 꼭 필요합니다. 뉴욕시 공익 대변인 민주당 후보 레티샤 제임스를 기억해 주십시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공익 대변인

James Lane (G)

저는 직업 정치인이 아니라 평생 뉴욕시에서 살아온 주민입니다. 저는 플러싱에서 태어나고, 할렘에서 자랐으며, 헬즈키친에서 성숙기를 보내고, 지금은 파크슬로프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기혼자로서, 뉴욕시 공립학교 시스템에 어린 자녀를 맡기고 있습니다. 23 이란 나이에 저는 암과 당뇨에 관련된 병으로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2 살 때 제 부모님께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 법률 때문에 제 원래 가족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정의를 위해 정치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 자기 본래 가족에 대해 알 권리를 부정하는 법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없애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난 25 년간 저는 노조 및 기업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아 왔고, 여가에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운동가로 자원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운동가로 활동하면서 저는 시 정부가 주민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치적 뒷거래로 저렴한 주거시설을 줄이고, 소방서 문을 닫고, 공립학교 지원을 감소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어떤 대화도 시도하지 않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공익 대변인 녹색당 후보로서 저는 주민들의 편에서 시장과 시 정부를 감시할 것입니다. 두 정당 시스템 밖에서 온 사람이 당선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